5부 직접적인 지침

죄 죽이기 13편 결국 십자가를 보라 · 믿음과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법

5부 14장(192~210쪽). 마지막 절의 지도는 책 전체(머리말~14장)를 정리한 것

> ❓ **그래서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 오늘 뭘 하면 돼?**

🧭 흐름 한눈에

오웬은 8~12편에서 다룬 아홉 지침이 죄를 죽이는 일 자체가 아니라 마음을 준비시키는 예비 작업이었다고 정리한다. 본격적인 지침은 둘뿐이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두 방식으로 일한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묵상하고, 그분에게서 오는 건져 주심을 근거를 가지고 기대한다. 그 근거는 셋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긍휼에 풍성하신 대제사장,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능력을 기대하고 닮기를 바라며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첫걸음부터 기도까지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13편 전체는 “너희가 영으로써 죽이면”이라는 로마서 8:13 한 구절로 다시 모인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1. 예비 작업은 끝났다, 이제 본격 작업 (14장)

죽이기는 시작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길게 다룬 것이다. 그러니 앞의 지침들이 쓸모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준비된 마음이 실제로 할 일은 많지 않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이다.

1. 8~12편의 지침은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
2. 준비 없이는 죄 죽이기가 시작되지 않는다
3. 본격 지침은 둘: 믿음과 성령
4.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한 치료약이다

> **요한일서 1:7**
>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
>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히브리서 9:14**
> 그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
>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치료약이다.”

📜 2. 그리스도의 충만을 묵상하라: 무너진 영혼의 혼잣말 (14장)

믿음을 쓰는 첫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죄 죽이기를 위해 마련해 두신 약속으로 영혼을 채우는 묵상이다. 내재하는 죄는 내 힘으로만 싸우면 결국 나를 지쳐 쓰러지게

말한다. 나는 물처럼 흔들리고, 다짐은 번번이 무너졌고, 이겼다는 확신도 착각이었다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은혜가 가득하고 그분의 손에는 모든 권세가 있으니, 처진 손을 다시 든다. 바울도 시험이 곧바로 떠나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 안에서 버텼다. 오웬은 이렇게 묵상하면 당장 이기지 못해도 전쟁터에서 도망치거나 절망해 거짓 해결책을 붙잡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다만 이 묵상은 실제로 해 볼 때에만 효력이 있다.

1. 약속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라
2. 먼저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한다
3. 그래도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고 일어선다
4. 시험이 남아도 은혜는 족하다
5. 목표는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 **골로새서 1:19**
>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
>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 **요한복음 1:16**
> 그 충만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
>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 **누가복음 15:17**
>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떠올린 탕자
>
>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 **사도행전 5:31**
> 회개를 주시는 분이면 죄 죽일 힘도 주신다
>
>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빌립보서 4:13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18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사야 40:27-31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35:7

승냥이 굴 같은 땅을 풀밭으로 바꾸신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 **고린도후서 12:9**

시험이 남아 있어도 은혜는 족하다

로마서 8:37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3.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건져 주심을 기대하라 (14장)

믿음을 쓰는 둘째 방법은 마음을 들어 올려 그리스도께서 건져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건져 주심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정욕의 힘에서 꺼내 주시는 일을 말한다. 하박국의 묵시처럼 건져 주심에는 정한 때가 있어서,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온다. 괴로운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가 실제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영혼이 안정을 얻는다. 오웬은 언제, 어떻게 건지실지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서 오는 것만 바라라고 강조한다.

1. 건져 주심에는 정한 때가 있다
2. 늦어 보여도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다
3. 종이 상전의 손을 보듯 그리스도를 보라
4. 방법과 때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긴다

> **하박국 2:3**
>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
>
>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 **시편 123:2**
>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
>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오는 건져주심만을 바라라.”

📜 4. 이 기대는 헛되지 않다: 근거 셋 (14장)

그 기대가 헛된 꿈이 아니라는 근거를 오웬은 셋으로 든다. 첫째,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 하나를 죽이는 데에도 그분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한다. 죄를 죽이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둘째,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친히 시험을 겪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오웬은 이것이 고난으로 능력이 커졌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돕고자 하시는 마음이 그 능력에 더해졌다는 뜻이라고 풀이한다. 그러니 죄 죽이기는 나를 몰아세우는 고행이나 자책이 아니다. 오웬은 이 대제사장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가 사람이 지어낸 어떤 혹독한 고행보다 정욕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죽인다고 말한다. 셋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 그 언약은 해와 달이 궤도를 도는 것처럼 확실하고,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처럼 반드시 온다.

1.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
2. 시험을 겪으신 대제사장이 도우신다
3. 능력이 커진 게 아니라 돕는 마음이 더해졌다
4. 이 믿음이 어떤 고행보다 확실하다
5. 약속은 아침처럼 반드시 온다

> ☆ **요한복음 15:5**
>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 **에베소서 3:16-17**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히브리서 2:17-18

시험받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를 도우신다

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 히브리서 4:15-16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사야 66:13

어머니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부르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레미야 31:36

언약은 하늘의 법도처럼 확실하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30: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린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 5. 기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14장)

오웬은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에 두 가지 이점이 따른다고 말한다. 첫째, 그 기대가 그리스도께서 서둘러 도우시게 한다. 친구가 정당한 이유로 내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면 도우려는 마음이 가장 뜨거워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말라 버린 우물이 아니시다. 둘째, 그 기대가 우리를 은혜의 수단으로 데려간다. 도움을 기다리는 거지는 베풀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통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므로, 그분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분을 찾는다. 그래서 기대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기도와 묵상 같은 구체적인 수단은 모두 이 뿌리에서 자라난다.

1. 기대는 그리스도가 서둘러 돕게 한다
2. 하나님은 말라 버린 우물이 아니다
3. 기대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4. 거지는 베풀 사람의 길목에 앉는다
5. 기도·말씀은 이 기대에서 자란다

시편 9:10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사야 45:19

내 얼굴을 헛되이 찾게 하지 않으신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 6.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14장)

오웬은 믿음이 특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와 십자가를 향하게 하라고 권한다. 죄 죽이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특별한 목적이었으므로, 그분의 죽음에는 반드시 죄 죽이기가 따라온다.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죽으셨다. 마귀의 일은 첫 시험이 우리 본성에 남긴 부패와 날마다의 유혹이 심어 놓은 것을 말한다. 로마서 6장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고 말한다. 오웬은 옛 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뜻한다고 풀이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실 성령을 얻으셨고, 그 죽음의 효력이 실제로 우리를 죄에 대해 못 박는다는 것이다.

1. 죄 죽이기는 십자가의 목적 중 하나
2.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죽으셨다
3. 세례로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
4. '함께 못 박힘'은 원인과 결과의 말
5. 죽으심으로 죄 죽일 성령을 얻으셨다

디도서 2:14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려 자신을 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25-27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 죽으셨다

거룩하게 하시고 [27]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2-4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 살랴

[2]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 로마서 6:6

옛 사람이 못 박혀 죄의 종노릇이 끝난다

📜 7. 능력을 기대하고 닮기를 바라며 십자가를 보라 (14장)

오웬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두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하나는 죄를 죽일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앞의 지침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그분을 닮으려는 마음이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된 사람이 다른 데 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웬은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기도하며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앞에 그리라고 권한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 피를 내 부패함에 바르라고 한다. 이것은 그 피의 효력을 바로 내 이 죄에 적용하는 믿음을 그림처럼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하라고 한다.

1. 능력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보라
2. 그분을 닮기를 바라며 십자가를 보라
3. 죽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눈앞에 그리라
4. 그 피를 내 부패함에 바르라

☆ **갈라디아서 3:1**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게

빌립보서 3:10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골로새서 3:3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베드로전서 1:15-19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의 거룩함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골로새서 1:13-14

그 피로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다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 8.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 여섯 가지 일 (14장)

마지막 지침은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오웬은 우리의 의무로 설명한 죄 죽이기 전체가 모든 부분과 단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섯 가지다. 첫째, 죄의 악함과 죄책과 위험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 논리적인 설교만으로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희미한 인식밖에 생기지 않고, 그것으로는 의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은 정욕의 핑계와 위장을 하나하나 벗기신다. 둘째,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여 주셔서 우리가 절망해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 셋째,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건져 주심을 기대하게 하신다. 넷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게 하셔서 죄를 죽이는 십자가를 마음에 들이신다. 다섯째, 성화를 시작하고 완성하신다. 여섯째, 죄를 죽이려는 우리의 기도를 붙드신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간구의 영”이시다.

1. 죄 죽이기 전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2. 첫 일: 정욕의 핑계와 위장을 벗기심
3. 충만을 보이고 기대하게 하심
4. 십자가를 들이고 성화를 이루심
5. 말 못 할 탄식으로 기도를 붙드심

> **요한복음 16:8**
> 성령이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
>
>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 **고린도후서 12:8-9**
>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함
>
>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로마서 6:3**
>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13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됨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3:16-18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짐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스가랴 12:10

찌른 분을 바라보게 하는 간구의 영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 **로마서 8:26**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신다

📜 9. 내 죄와 싸우는 지도 한 장 (책 전체, 1~13편)

13편을 한 장의 지도로 접으면 이렇다. 토대는 로마서 8:13 한 구절이다. 신자는 평생 죄를 죽여야 하고, 그 일은 성령으로만 되며, 영적 생명의 힘과 위로가 거기에 달려 있다(세 원리). 죄 죽이기는 죄를 완전히 뿌리 뽑거나 잠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수관처럼 약하게 하고 늘 싸워 이겨 나가는 것이다(정의). 이 싸움은

된다(일반 지침 둘). 아홉 가지 구체 지침이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성령이 실제로 죄를 죽인다(직접 지침 둘).

지도 한 장(화면용)

1. 출발점: 로마서 8:13. 너희가(의무) 영으로써(능력) 죽이면 산다 (1편)

2. 세 원리: 평생의 일 · 성령만이 하신다 · 생명의 활력이 달렸다 (2~4편)

3. 정의: 아닌 것(뿌리 뽑기, 숨기기, 기질 다듬기, 딴 데로 돌리기, 가끔 이기기) / 인 것(습관적으로 약하게, 늘 싸우기, 이겨 나가기) (5~6편)

4. 일반 지침 둘: 먼저 신자인가 · 전체 순종의 진실함 (7편)

5. 구체 지침 아홉, 곧 마음 준비 (8~12편)

① 위험한 증상 살피기 ② 죄책·위험·악을 분명히 깨닫기 ③ 양심에 죄책 지우기 ④ 건져지기를 늘 사모하기 ⑤ 기질에 뿌리를 둔 죄인지 살피기 ⑥ 죄가 힘을 얻는 기회 경계하기 ⑦ 첫 움직임에 힘껏 맞서기 ⑧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낮아지기 ⑨ 하나님보다 먼저 스스로 평안을 말하지 않기

6. 직접 지침 둘, 곧 본격 작업 (13편): 믿음(충만 묵상 · 건져 주심 기대 · 십자가) + 성령 의지

1. 토대: 로마서 8:13 '영으로써 죽이면'
2. 원리 셋 → 정의 → 일반 지침 둘
3. 구체 지침 아홉은 마음을 준비하는 일
4. 직접 지침 둘: 믿음과 성령
5. 끝은 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 ★ **로마서 8:13**
> 책 전체의 토대. 영으로써 죽이면 산다

> ★ **갈라디아서 5:17**
> 육신과 성령의 평생 싸움(원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원리)

★ 로마서 7:18-25

신자 안에 남은 죄의 실상(원리·정의)

★ 야고보서 1:14-15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는 과정(구체 지침)

★ 고린도전서 13:12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앎 → 겸손(구체 지침 ⑧)

★ 이사야 57:18-19

평안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구체 지침 ⑨)

★ 히브리서 4:15-16

대제사장께 담대히 나아감(직접 지침)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8~12편의 아홉 지침을 체크리스트처럼 다 해내면 죄가 죽는다	아홉 지침은 마음을 준비시키고, 실제로 죽이는 일은 믿음과 성령이 한다
“이번엔 진짜 끝”이라며 더 센 결심을 세운다	다짐이 무너진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묵상하며 다시 일어선다
실패할 때마다 나를 벌주고 몰아세운다	시험을 겪으신 대제사장의 긍휼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기대한다”면서 기도와 말씀을 내려놓고 기다린다	거지가 길목에 앉듯 은혜의 수단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오래 안 풀리니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 결론 내린다	정한 때가 있으니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리고, 전쟁터를 떠나지 않는다

풀이: 오웬은 예비 작업을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 준비 없는 마음에서는 죄 죽이기가 시작되지도 않는다. 다만 준비는 준비일 뿐이다. 칼을 쥐고 휘두르는 분은 그리스도와 성령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붙든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거듭난 뒤에도 신자 안에 남아 계속 죄로 끌어당기는 부패한 성향.

정욕(욕망)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강한 욕구.

그리스도의 충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 없이 가득 마련되어 있다는 것.

건져 주심
이 편에서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정욕의 힘에서 그리스도께서 꺼내 주시는 일.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 중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

은혜의 수단(규례)
기도, 말씀, 성례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정하신 은혜의 통로.

성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성령으로 점점 거룩하게 변해 가는 과정

성령께서 신자 안에 머무르시며 일하시는 것.

간구의 영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을 부르는 이름.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죄를 실제로 죽이는 지침은 둘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쓰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다.
- 믿음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묵상하고,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과 대제사장의 긍휼과 약속의 신실함에 근거해 건져 주심을 기대한다.
-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능력을 기대하고 닮기를 바라며 날마다 바라본다.
- 죄를 깨닫는 첫걸음부터 기도까지 모두 성령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죄 죽이기는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다.
- 13편의 지도는 로마서 8:13으로 돌아간다. 너희가 영으로써 죽이면 살리라.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14장 죄를 죽이기 위한 직접적인 지침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